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서춘수 함양군수를 단장으로 한 국제우호교류단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산삼엑스포 홍보 활동을 펼쳤다.

“현대차, 까라왕에 신설 공장부지 확보” 루훗 해양조정장관

루훗 조정장관 “올해 11월 한국서 현대차 인도네시아 투자계약 서명할 것”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까라왕 지역에 전기차를 생산할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26일 루훗 장관이 밝혔다.

루훗 장관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루훗 조정장관은 “현대차가 까라왕에 공장 부지를 확보했고 공장 설립을 위해 약 10억 달러(약 14조 루피아)를 투자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한국에서 (투자계약과 관련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훗 장관에 따르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현대차 공장 착공 일자 등 구



▲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왼쪽)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25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7.25 [현대자동차 제공]

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루훗 장관은 이어 “현대차가 까라왕 지역뿐 아니라 중부자바주에 공장 건설에 관심

을 갖고 있다”며 “전기자동차용 리튬 배터리 공급을 위해 한국기업 LG가 중국 전자제조사 CATL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하자,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지 완성차 공장 건설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21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현지공



▲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확정되면,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점쳐지는 SUV 차량 코나(Kona) 전기차. [사진: 위키미디어]

장 건립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차종은 최근 자동차 시장 대세로 자리매김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와 MPV(다목적차)와 승용차 제품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인 니켈 라테라이트 광석이 풍부한 중부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지역에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간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2025년까지 20%(약 40만 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 다이하쓰, 혼다, 미쓰비시, 스즈키 등 5개 일본 자동차 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는 이들 5개 기업의 신차판매 기준 시장점유율이 91.3%에 이르기기도 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MRT자카르타, 제3기 공사 노선 확정...총 22개역 설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설중인 대량고속수송시스템(MRT)을 운영하는 주영

MRT 자카르타(PT MRT Jakarta)는 25일, 자카르타의 동서를 연결하는 제3기 노선을 밝혔다. 총연장 31.7킬로미터로 22개역이 설치된다.

현지 언론 끈판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3기 공사 중 1단계는 서부 자카르타 깔리데레스~쭌빠까 바루 구간까지 13

개역(20.1킬로미터)을 설치, 2단계는 쭌빠까 바루~자카르타 우중 멘헝까지 9개역(11.6킬로미터)을 설치한다. 그로 골역~쭌빠까 바루역 구간 9개역은 지하 구간이다.

MRT 자카르타는 앞서 제3기의 건설 비용이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 Leading Logistic Provider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재인니한인회 주관 '한인100년사 편찬위원회', 각계 역량 있는 위원들 위촉 결성



1920년 9월 20일. 장운원 선생이 지금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도착했다. 이를 기점으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한인 진출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를 편찬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6일 자카르타 주인도네시아한인회

회의실에서 '한인100년사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내년 2020년으로 100년을 맞이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간의 각계 활동과 발자취를 총망라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는 많은 관련 한인들이 참여하여 진실성 및 정통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형식의 자료 수집부터 집필, 편집 등의 여러 단계의 검토와 감수를 거치게 된다.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는 2020년 9월을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한 편찬위원장 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한인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의 100년을 정리하는 이 책의 출간사업은 1년이라는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지속적인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편찬위원장은 "이미 공모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자료수집 부문이나 출간까지의 여러 과정에 보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시노펙스, 인니 수방군과 나노여과 수처리 협력

공동 프로젝트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스템 개발 · 사업화 추진

시노펙스가 인도네시아 수방군과 함께 고도 정수처리공정 시스템 개발과 수처리 사업화를 추진한다.

시노펙스는 16일 오후 현지에서 수방군수도국과 '나노여과 (Nano Filtration) 분리막 이용 고도 정수처리공정 시스템 개발 · 수처리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시노펙스 배광일 국책과제 연구소장과 인도네시아 수방군 수도국의 수르야나(Suryana) 국장이 참여했다.

시노펙스와 인도네시아 수방군 양측은 분리막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의 수처리 시스템 개발과 용수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적합한 분리막수처리



▲ (왼쪽부터)한구웅 시노펙스 인니 법인장, 수르야나 수방군 수도국장, 배광일 연구소장

시스템을 적용해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여기서 여과된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판매할 계획이다.

또 시노펙스가 '해외 진출형 나노막(NF)·저압역삼투막(LPRO) 기반 고도정수처리 장비 개발'의 진행을 위한 실증 테스트 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분리막 기반 고도정수처리 파일럿 시스템을 수방군지역의 정수장 내에 설치해 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9월 중순까지는 각종 설비와 시스템을 현지에 설치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여과된 물 샘플을 분석, 운전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배광일 국책과제 연구소장은 "고도정수처리 장비 개발 국책과제를 진행해오면서 2년 반만에 수입산이 주를 이루는 나노중공사막 필터의 국산화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해외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고도화할 위한 상호 협력을 이끌어 냈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동남아시아 물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팍스넷뉴스)

조꼬위 인니 대통령, "폐기물 소각발전소로 쓰레기 해결"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소각발전소 건설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17일 국영 안파라통신 등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은 전날 오후 환경부 장관·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등 각료들과 서부 자바 주지사·수라바야 시장·빨렘방 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했다"며 "그런

데 폐기물 소각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진전사항을 전혀 듣지 못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전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폐기물 소각발전소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거고, 그 뒤에 전력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꼬위 대통령은 작년 4월 지역별로 폐기물을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발전소를 건립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까지 12개의 폐기물 소각발



▲ 인도네시아에 건립 중인 폐기물 소각발전소

전소를 가동해 하루에 1만6천t의 쓰레기를 처리, 최대 234M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1만7천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2억7천만명의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팍스넷뉴스)

kakaoVX
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2020 함양 산삼 향노화 엑스포' 동남아서 열띤 홍보전

인도네시아·베트남서 관광객 모시기... 함양 방문 시 숙박·식비 등 인센티브



▲ '2020함양 산삼엑스포' 인도네시아 관광객 모시기[함양군 제공]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이하 산삼엑스포)' 국제우호교류단이 동유럽에 이어 동남아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산삼엑스포를 개최하는 함양군은 26일 인도네시아 최대 여행사협회(ASTINDO)와 문화관광 확대를 위한 교류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춘수 함양군수를 단장으로 한 국제우호교류단은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산삼엑스포 홍보 활동을 펼쳤다. 총인구가 2억 6천만여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K-POP, K

드라마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함양군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함양을 방문하면 숙박, 식비, 차량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서 군수는 "한류 붐을 타고 불로장생의 약초 '산삼'을 주제로 한 엑스포에 많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교류단은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동한다.

함양군에서는 내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산삼을 주제로 한 불로장생 산삼엑스포를 연다.

조꼬위

"자카르타 수몰 막기 위해 대방조제 건설 속도 내야"

AP통신 인터뷰서 "인기 없을지라도 주요 사업·개혁 추진"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수도 자카르타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대방조제 건설에 속도를 내길 원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조꼬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카르타 만(灣)에 대규모 방조제와 인공섬을 조성하는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했다.

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만7천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가 겹쳐 2100년이면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된다.



▲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 조감도

특히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자카르타의 3분의 1이 수몰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건물 급증 등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cm씩 지

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은 상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400억달러(약 44조원)를 들여 자카르타 만에 있는 기존 해안 댐 30km를 보강하

한-인도네시아, 투자·교역 분야 세정협력 강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한 양국가간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건강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22일 김현준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로버트 팍빠한(Robert Par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 6월 '한-인도네시아 국세청 간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기업 진출국이자 세 번째 투자 대상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한국 기업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팍빠한 청장은 10월 자국 개최 예정인 '제9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투자·교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교역 확대에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정보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 국세청장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고, 인공섬 17개와 추가 방조제를 건설하는 '그레이트 가루다 프로젝트'를 10년 전부터 계획했다.

방조제와 인공섬을 완성하면 신화에 나오는 새 '가루다'를 닮았다고 해서 프로젝트 이름에 '가루다'가 붙여졌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 부담과 함께 환경·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지부진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자카르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조꼬위 대통령은 앞으로 국내 정치에 덜 구속될 것이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주요 사업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또 "자카르타는 비즈니스와 경제 중심도시로 남고, 행정수도를 분리하길 원한다"며 "자바 섬에만 모든 자본이 몰리길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조꼬위 정부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에 수도 이전 예정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인도네시아, 목 탄다... 건기 9월까지 계속

자카르타 일부 지역 앞으로 60일 간 비 안 온다 자바섬과 서부, 동부 누사 가라 지역 가뭄으로 벼 수확 감소 우려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건기가 오는 8월에 절정을 이루고 9월까지 이어져, 앞으로 가뭄을 겪는 농경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11일 기상기후지질청(BMKG)이 예보했다.

앞서 BMKG는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가뭄이 더 심할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엘니뇨는 태평양 동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증가하거나 줄어서 홍수나 가뭄을 겪는 기후현상이다.

2015년에 발생한 엘니뇨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홍수, 인도네시아는 심한 가뭄을 겪었다.

미국 농업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엘니뇨로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남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식량생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카르타, 가뭄 심각

BMKG는 자카르타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뭄이 9월에 절정에 이를 것



▲ 땅그랑 지역 습지에 조성된 밭.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이라고 예보했다. 더욱이 자카르타 기온이 7월에 섭씨 36도, 8월에 38도까지 오르고, 지역에 따라 앞으로 20~30일 또는 최대 60일 간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예보했다.

현재 자카르타는 지역에 따라 21~30일 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지하수도 오염이 심해져서, 주민들이 식수뿐 아니라

목욕과 세탁을 위한 생활용수까지 구입해서 사용하는 상황이다.

BNKG는 현재 가뭄 정보 상태인 북부 자카르타 로로판과 라와다닥 지역에 앞으로 60일 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21~30일 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보된 지역은 북부 자카르타 판중쁘

리옥, 플록 공; 남부 자카르타 빠구부워노; 동부 자카르타 플로가둥; 서부자카르타 서부포망; 중부자카르타 와둑 멀라따 등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부 자카르타 무아라 바루 지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후 수돗물이 마르고 지하수 오염이 심해져서, 주민들이 월간 평균 60만 루피아를 물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논 10만 헥타르 가뭄 피해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현재 건기에 따른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논 10만 헥타르 이상을 피해를 입었고, 이중 9천 헥타르는 벼 수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 농업인프라국은 현재 반뜰, 서부자바, 중부자바, 족자카르타, 동부자바, 서부누

사똥가라(NTB), 동부누사똥가라(NTT) 등 지역에 30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은 동부자바로 논 34,000헥타르가 가뭄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5,000헥타르는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어 서부자바, 족자카르타, NTT, NTB 순으로 가뭄 피해를 입었다.

농업부 식량국 수마르조 가뭄 국장은 9일 논 9,300헥타르에서 수확을 하지 못하면 벼 생산이 45,000톤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농업부는 건기를 활용해 늪지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건기에만 논 10만 헥타르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반뜰, 서부자바, 동부자바 등 주요 곡창지대의 농경지가 빠르게 감소하는 한편,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서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형 교량안전관리 기술 인도네시아에 수출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총 4년간 45억원 규모 현수교 사장교 등 특수교량관리기술 전수

한국의 특수교량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게 됐다. 이번 '인도네시아 국가교량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는 한국 시설안전공단을 비롯해 민간 전문 기업인 (주)제이텍 및 (주)다음기술단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여 7월 30일에 착수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교량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



년부터 2년간 수행되었던 KOICA ODA사업(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 강화사업)의 후속으로,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총 4년간 4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본 구축사업은 현수교, 사장교 등 특수교량 통합유지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통합유지관리 센터 구축, 국가교량유지관리 업무매뉴얼 작성,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및 인도네시아 공무원과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초청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MPWH)와 한·인니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MOU('15.4.13.)를 체결하고 시설물 안전분야 상호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두 차례의 협력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공단에서는 한·인니 중앙정부 간 시설물

안전관리분야의 교류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특수교량 안전과 유지관리 기술 수출을 통해 국내유지관리관련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단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특수교량 안전관리 기술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인 관련 민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기회 제공을 목표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배양 및 해외사업 추진역량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ELIT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기오염지수 세계 1위... 공기 질 최악

‘에어비주얼’ 87개 도시 비교...부산 42위 · 서울 53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오염지수(US AQI)가 2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96을 기록,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데이터 업체 ‘에어비주얼’ (AirVisual)은 87개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지수 순위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US AQI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US AQI는 ‘좋음’ (0~50), ‘보통’ (51~100), ‘민감한 사람한테 건강에 해로움’ (101~150), ‘건강에 해로움’ (151~200), ‘매우 건강에 해로움’ (201~300), ‘위험’ (301~500) 등 6단계로 나뉜다.

자카르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US AQI 145)가 2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US AQI 134)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부산은 42위, 인천은 52위, 서울은 53위이다.

자카르타는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최근에는 자카르타 시민들이 대기오염과 관련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대정부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기오염 지수가 건기(6~9월)에 통상 더 높아진다.

인니 초등학교 화장실에 사는 ‘계약직 교사’ ...월급 3만원



15년간 계약직 교사 생활, 집 무너진 뒤 화장실 거주 사연 알려져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화장실에 사는 계약직 교사의 딱한 사연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관심이 쏠렸다.

17일 일간 폼빠스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반뜰의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 니닝 수리아니(44)는 남편(50)과 함께 화장실 건물 일부를 가정집으로 개조해 살고 있다.

이 화장실은 매일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이다.

이들 부부는 2년 전 살고 있던 집이 너무 낡아 무너진 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돈이 없자 교장에게 화장실 건물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교장이 사준 나무로 화장실 일부를 막아 방을 만들어 잠을 자고, 학생들에게 간식도 팔고 있다.

15년 동안 계약직 교사로 일해온 니닝의 월급은 3만 루피아(3만원)에 불과하며, 남편은 가끔 일용직으로 일할뿐 고정 수입이 없다.

자녀 중 첫째는 자카르타에서 일하고, 둘째는 40km 떨어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니닝은 “둘째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규직 교사이자 공무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며 어렵게 대학 졸업장도 받았지만 꿈이 이뤄지지 않았다.

니닝의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지자체와 다른 교사들이 이들 부부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나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World AQI Ranking

09:03, Jul 29

MAJOR CITY

MAJOR CITY	US AQI
1 Jakarta, Indonesia	196
2 Dubai, United Arab ...	145
3 Johannesburg, Sout...	134
4 Kuwait City, Kuwait	118
5 Tehran, Iran	113
6 Krasnoyarsk, Russia	107
7 Lima, Peru	99
8 Tashkent, Uzbekistan	97
9 Santiago, Chile	93
10 Dhaka, Bangladesh	93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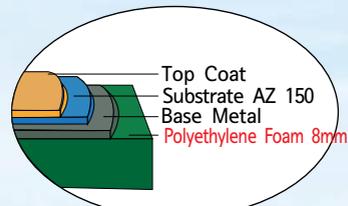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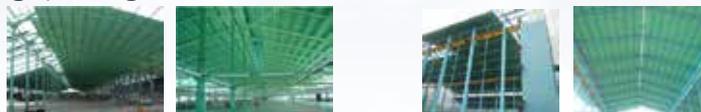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인니 선정 ‘차세대 유니콘’ 44개에 韓 스타트업 포함

김성훈 대표, 인니 음식점 소개 앱 ‘Qraved’ 7년째 운영



▲ 인니 음식점 소개 앱 ‘Qraved’ 직원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육성하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 44개 가운데 한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김성훈(39) 대표가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공동 창업해 7년째 운영 중인 음식점 소개 앱 ‘큐레이브드’ (Qraved)가 바로 주인공이다.

김 대표는 13일 “2013년 초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회라 생각했고, 바로 그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PC 보급률이 낮았던 인도네시아에 모바일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저기라면 네이버, 다음처럼 내 사업을 크게 키울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

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는 배차 앱 고젝(Gojek), 전자상거래(EC) 사이트 토포피아(Tokopedia)와 부깔라팍(Bukalapak), 여행 사이트 트래블로카(Traveloka) 등 4개사가 있다.

인니 정보통신부는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44개 스타트업을 ‘넥스티콘’ (Nexticon)으로 선정해 2017년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44개 기업 대표를 미국 실리콘밸리로 데려가 투자자들을 만나게 하고, 발리로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이들 44개 기업이 프레젠테이션할 기회를 줬다.

김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

를 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뭐든 마음껏 해보도록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는 잘나가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깎아내리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블루오션이라 그런 게 없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라며 “나대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아서 사업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장점을 꼽았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일했던 김 대표는 2010년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하러 프랑스로 떠난 뒤 스타트업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는 2011년부터 선진국 스타트업 모델을 본떠서 신흥국 시장을 선점하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회사 ‘로켓 인터넷’의 동남아시아 공동창업자로 활동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본뜬 ‘웜두’, 온라인 신발 이커머스 업체 자포스를 본뜬 ‘잘로라’ 등 설립 업무를 수행한 김 대표는 미국인·영국인 동료와 의기투합, 셋이서 회사를 그만두고 ‘큐레이브드’를 설립했다.

김 대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소득수준보다 외식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며 “인구가 2억7천만명에 달하기에 외식 관련 사업을 하면 인기를 끌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 아이디어에 미국·일본·에스토니아 투자자들이

5억원을 창업자금으로 투자했고,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모였다.

큐레이브드 앱에는 인도네시아 4만개 음식점 정보가 사진·동영상·글로벌 수록돼 있으며, 이용자의 위치나 선호하는 장소를 기반으로 음식점을 추천하고 쿠폰 등을 제공한다. 월 사용자는 300만명이다.

스타트업인 만큼 자카르타 중심 쇼핑몰의 공유 오피스 업체 ‘고 워크’에 사무실을 두고, 인도네시아 직원 40명이 음식점의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김 대표는 입소문이 난 식당은 직접 찾아가서 맛을 보기에 인도네시아의 최고급 레스토랑부터 노점까지 800여개 식당을 다녔다고 한다.

그는 “스타트업은 아이디어보다 실행이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창업하던 동남아에서 하든 창업을 하기 전에 관심 분야 회사에 들어가 짧게라도 경험을 쌓을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印尼 아제, 일부다처제 허용 조건 완화 검토



샤리아(이슬람 관습법)가 시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제 주의회가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조례안은 남성이 현재의 아내 동의 없이 4명까지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인도네시아의 결혼법에서는 남성이 새로운 여자와 결혼할 경우 현재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과는 상반된다.

종교·문화 문제를 다루는 의회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안은 아제 지방 정부의 이슬람 율법 당국이 제안했다. 혼인 신고가 없는 내연 관계의 가짜 부부가 늘고 있

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는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아내로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여성과 사생아 신분에 있는 아이들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인도네

시아의 이슬람 보수파는 “이슬람 종교상 용인이 되는 일부다처제는 조례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사업체 스냅카트,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 오보(OVO)



인도네시아 재벌기업 리뎀 그룹(Lippo Group) 산하의 전자머니 포인트 서비스 오보(OVO)가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뽑혔다.

소비자 동향을 조사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스냅카트(Snapcart)가 5월에 실시한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동향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오보를 선택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틀 데일리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OVO의 응답자가 선호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은 배차 앱 대기업 고젝(Gojek)의 전자결제 서비스 고파이(Gopay)로 23%, QR코드 결제서비스 다나(DANA)와 링크아자(LinkAja)각각 6%, 1%였다.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의 용도별 사용량은 ‘소매 결제’가 28%, ‘배차 서비스’가 27%, ‘음식 택배 서비스’가 20%, ‘전자 상거래(EC)’가 15%, ‘공공요금 지불’이 7%였다. 모든 분야에서 응답자의 63~71%가 가장 선호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보를 선택했다.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 내역:

1. 현지 법인 설립(PMA, PMDN, 연락사무소)
2. 투자청, 온라인 허가(OSS, NIB-APIU, P)
3. 이타스(ITAS) 및 은퇴비자(LANSIA VISA)
4. 부동산(주택, 사무실, 공장, 건물 등)
5. 무역업무대행(제품, 원부자재소싱등)

이메일 : ptgcc@hanmail.net 카카오톡 ID: kitas
 Tel : 021-5577-6454, 021-551-4891
 위치 : 팡그랑 리뎀 까라와치 루포 피남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18 (평가식당앞 상가)



▲ 고젝 새 로고 [이미지: 고젝 웹사이트]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고젝(Gojek)이 22일 보편적인 주문형 서비스 플랫폼(on-demand service platform)을 강

고젝, 새 로고 발표하고 동남아시아 슈퍼 앱 도약 선언

조하는 새 브랜드 로고를 발표했다고 2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첫 번째 데카콘인 고젝은 이날 향후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슈퍼 앱으로 변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4,500억 원)를 넘는 스타트업을 말하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차량공유 기업 그랩(Grab)에 이어 두번째로 데카콘이 됐다.

새 로고 디자인에 대해, 고

젝 공동 설립자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은 “오늘의 테마는 점진적인 발전이다. 고젝은 더 이상 차량 호출 서비스 앱도 음식 배달 서비스 앱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뭔가 다르고 집합적이며 광범위한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상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솔브(Solv)’라 명명된 새 로고는 검색 기호, 지도상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포인트, 오토바이 바퀴, 오토바이를 탄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 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도식화했다.

나디엠 대표는 “새 로고는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젝은 오토바이를 호출하는 콜센터로 출발해, 2015년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는 오토바이 택시, 택배, 전자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람, 재화, 돈이 이동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했다.

고젝은 지난 3년 간 거래 규모가 1,100%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함에 따라 미래를 대비한 성장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했다.

고젝이 서비스하는 ‘고페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디지털페이 또는 무현금 지불 서비스이다.

지난 3년 간 고젝은 파트너 기사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2천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업이 키웠다.

고젝이 파트너를 맺고 있는 오토바이 기사는 창업 초기에 2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고젝은 필리핀, 베트남, 태

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 진출했다.

고젝과 제휴하고 있는 점포는 40만 개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만 서비스 제공업체 6만여 곳과 협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파트너 기사, 판매자 그룹을 3가지 타입의 앱을 이용해 각각 운영한다.

고젝은 오토바이, 자동차, 택시 등 차량과 음식 배달, 청소부, 미용, 마사지 등 22종류의 주문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개편 의미에 대해, 고젝 공동설립자 케빈 알루(Kevin Aluw)는 “오늘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운송 회사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선도적인 테크회사로 발돋움했음을 선포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젝은 지난 주에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뿔 올라마(NU)와 협력해 구호금 지불을 디지털화했다.

구글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차량 호출 서비스(자동차+오토바이 포함) 규모는 2017년 51억달러(5조4707억7000만원)에서 2025년 201억달러(221조5612억7000만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포스코인터내셔널, 팜오일사업 인니 파푸아서 의료봉사



▲ 인도네시아 파푸아 의료봉사[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6~13일 고려대 안산병원 등과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주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팜 오일(Palm Oil) 법인이 소재한 지역으

로,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역 내 병원, 학교, 종교시설 등을 설립해 지역주민에게 차별 없는 무상 혜택을 제공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국내 및 현지 의

료진 30여명과 현지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했다. 파푸아 주민 1천16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펼쳤다.

건강한여성재단, 씨젠의료재단도 참여한 이번 봉사단은 주민들에게 입산부 건강 지침, 위생관념 등 보건의료 교육을 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기 사용법과 결과 판독 등 의료 교육도 병행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에서 마나웅섬 주민들을 위한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현지 전력난을 해결하고 비즈니스 창출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뱀에 둘러싸여 태연하게 스마트폰 보는 인니 소녀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소녀가 6마리의 거대한 뱀에 둘러싸인 채 태연하게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화제다.

어릴 때부터 파충류와 친숙해졌다는 소녀의 이번 영상은 거대한 비단뱀과의 동거모습이다.

지난달 21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자카르타 근교 반뜰 주 땅오랑에 살고 있는 마하라니(6)가 6마리 뱀에 둘러싸여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모습이 담겼다. 소녀가 무시무시한 뱀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건 다름아닌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시리즈 ‘업핀 앤 이핀(Upin & Ipin)’.

현장에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대한 비단뱀으로부터 자식의 안전을 위해 지켜보고 있었던 아빠가 있었다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우 위험천만 순간이다.

마하라니는 지난 4월에는 영국 외신 데일리메일을 통해 유난히 파충류를 사랑하는 아이로 소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소녀는 노란색 수영복을 입고 악어와 함께 욕조 안에 들어가 악어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려 악어의 이빨을 양치질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부모가 소녀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 세종문화아카데미 개강식 열어

한국문화를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은 지난 7일에 세종문화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세종학당에 다니는 수강생 이외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종학당재단의 대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거점 세종학당은 2017년 이래 매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강식에는 본과정에 참가하는 40여 명의 수강생 전원이 참석했다.

이 날 개강식에 온 수강생들은 세종문화아카데미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할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며 자신이 배우고 싶은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 함께 한국 대표적인 음식으로

차려진 한식을 즐겼다.

이번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영화와 드라마’ 수업(7/7)을 시작으로, 케이팝 댄스(7/13(토)~15(월)), 탈춤(7/20(토)~22(월))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접하기 어려운 ‘태권’ (7/27(토)~29(월))



2019 세종문화아카데미 SEJONG CULTURE ACADEMY



강좌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파견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강사진은 자카르타 국립 69번 중학교를 찾아 특별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일반 대중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올해 세종문화아카데미는 8월 3일(토)에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마칠 예정이다.

[KOTRA수출노하우] 조코위 연임과 인도네시아 진출기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인구 세계 4위의 대국 인도네시아는 들쭉였다. 단순히 인도네시아에 첫 문민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그의 파격적인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500달러대 수준으로 당장 먹고살기 바쁜 서민층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도 빠듯한 예산으로 혁신의 아이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원래는 300조루피아 이상으로 유지되던 에너지 보조금을 대통령 당선 1년 차에 직전 연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인프라에 쏟아부었다. 그에게 인프라는 썩빵의 양꼬치와도 같이 경제성장의 기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단이자 목적이었다.

조코위 1기 정부가 끝을 향해가는 시점에 인도네시아는 많이 변했다. 불과 500km의 고속도로만 깔려 있던 인도네시아에 서로 약 800km 떨어진 자카르타시와 수라

바야시를 잇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항만 및 공항 건설, 해양 고속도로와 철도 연장 등 열악한 인도네시아 물류 인프라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상 최초의 지하철인 MRT가 개통됐으며 도심 곳곳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생겨났다.

3만5000MW 규모의 전력 발전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다. INSW, OSS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도 새로 구축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과 3년 전보다 많아졌다. 그 밖에 전자상거래와 스타트업 시장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런데 2019년 10월부터 시작될 2기 정권은 어떠한가?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 및 차기 정권에 대비하는 현재의 행보를 보면 2기 정권에서는 같은 듯 다른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기의 중점 육성 분야는 인프라였다면 2기의 중점 육성 분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변화될 예정이다.

일례로 국가건강보험가입자율 100% 달성과 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이 있다. 급여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근로자 복지 개선, 직업교육 체계 개선을 통한 구직자와 근로자의 업무역량 강화, 노동자 인권 보호, 수도 이전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고젝(Gojek)이나 트래블로카(Traveloka)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유니콘과 데카콘 배출을 위한 스타트업 설립 규제 완화, 5년 내외의 계도 기간을 두고 올해 10월부터 추진될 할탈 인증 의무화 시행 또한 인재 보호 및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연임이 더 기회일 수도, 위협일 수도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의 진출은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로 다가오기도 하고, 수출

을 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세운 후 수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도네시아의 인증 및 수입 규제 제도, 파격적으로 바뀌어 안정되지 않은 각종 행정 등록 체계는 기회의 땅으로 보이던 인도네시아가 좌절의 땅으로 변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한다.

조코위 대통령이 카리스마 넘치는 정책으로 갑자기 수입을 억제한다든지, 현안에 따라 긴급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도 2024년까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주요 비교 대상 국가인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GDP 규모의 24% 수준임에도 한국의 3위 수출국인 점을 보면(인도네시아는 15위·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사업 여건은 베트남보다 만만하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인도네시아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기업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반사 이익 수혜 가능성, 조코위 대통령 연임으로 인한 변화가 적은 비즈니스 환경, 소비재를 중심으로 부는 한류 열풍, 산업 현장에서의 한국산 제품 수요 발생 등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산업군별로 발전 단계에 따른 규제 정도 및 시장 여건에 따른 진출 가능성 여부가 상이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우리 기업은 진출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관심 사업 파트너 물색 작업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해 인도네시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허유진 자카르타무역관 차장

인도네시아 민주화 약간 진전...2년 연속 지수 상승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29일 국내 민주화의 진척 정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가 2018년에 72.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의 72.11에서 약간 진전해 2년 연속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지수(Indonesian Democracy Index, IDI)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 제도'의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지수화 했다. 80 이상을 '양호', 60~80을 '중간', 60 미만

을 '결함이 있다'고 평가한다.

2018년은 '민주주의 제도'가 75.25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정치적 권리'는 0.8 포인트, '시민적 자유'는 0.3 포인트 각각 악화됐다. '정치적 권리'는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정권이 출범한 2014~2015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11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가장 상승한 것은 '정당의 역할'로 10.5 포인트 상승해 82.10이 됐다. '정치 참여'는 1.9 포인트 하락해 11개 항목 중 가장 낮은 54.28을 기록했다.

주별로는 21개 주가 지수의 평균치를 웃돌았다. 최상위는 자카르타, 발리, 동부 누사틍가라주였다. 전년 대비 가장 민주화가 진전된 곳은 아체 주로 9 포인트 상승해 79.97이 됐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귀)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c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인니 코모도섬 내년부터 최소 1년 폐쇄 ... “멸종 막을 것”

코모도섬 주민들, 이주 결정에 “생계 막막하다” 반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모도왕도마뱀(Komodo Dragon) 개체 수를 늘리고,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최소 1년 동안 코모도섬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외안 다르마와 인도네시아 동(東)누사틍가라주 관광청장은 “환경부와 논의해 내년에 코모도섬을 폐쇄하기로 확정했고, 조꼬 위도도(동칭 조꼬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소 1년간 코모도섬을 폐쇄하고, 필요하면 2년까지 폐쇄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빅토르 라이스코다 동누사틍가라 주지사는 “코모도섬 폐쇄 결정은 서식 환경 복구와 보존을 위한 시간을 벌고, 코모도왕도마뱀이 멸종하지 않도록 개체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이번 폐쇄 기간 코모도섬에 1천억 루피아(8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모도왕도마뱀의 먹이인 사슴과 염소를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코모도왕도마뱀은 자신보다 작은 동족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 먹이가 부족하면 서로 공격한다.

코모도섬을 비롯한 29개의 섬으로 이뤄진 코모도 국립공원에선 코모도왕도마뱀의 개체 수가 2014년 3천93마리에서 2018년 2천897마리로 줄었다.

주변 지역에서 배를 타고 와 야생사슴을 무더기로 밀렵하는 이들 때문에 코모도왕도마

뱀의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지목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취약종(vulnerable)인 코모도왕도마뱀의 몸길이는 평균 2.3m이고 체중은 80kg 내외이지만, 간혹 3m가 넘게 자라 체중이 160kg에 육박하는 개체도 발견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모도섬의 관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을 섬 밖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에 코모도섬 주민들은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기에 생계가 막막하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루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인니 방영 만화 40% 한국산 ... 오승현 애니 감독 '깃발 꽃아'

미국서 활동하다 인니 스카우트된 뒤 지난해 독립 회사 차려



인도네시아 지상파 방송이 주중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의 40%를 한국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만화를 제치고 한국만화가 승승장구하는 데는 오승현(46) 애니메

이션 감독의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감독은 20일 "인도네시아의 14세 이하 인구가 7천 400만명"이라며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오 감독은 본래 미국에서 2006년~2014년 애니 전문 채널 니켈로디언, 카툰 네트워크,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드림웍스의 다수 작품을 성공 시켰다.

제주도 출신인 오 감독은 대학에 떨어진 뒤 1992년 상경,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애니 업체에 취업해 8만9천원의 월급을 받으며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그는 2002년 '원더플레이즈'라는 작품을 만드는 등 경력을 쌓은 뒤 2006년 미국 니켈로디언사에 스카우트됐다.

오 감독은 니켈로디언사가 만든 TV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바타-아양의 전설' 총감독을 맡아 이름을 알렸고, 이후 '파이어 브리

더', '제너레이터 렉스', '트론 업라이징' 등 시리즈를 감독했다.

그러다 2014년 말 인도네시아의 최대 미디어그룹인 MNC에서 "우리 그룹이 애니메이션 사업을 키워보려는 데 와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는 미국 생활을 접었다.

MNC는 공중파 채널 4개, 케이블 채널 25개, 자체 인공위성을 보유한 그룹으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서부 자바 주 보고르시 리도(Lido) 호수에 개발 중이다.

오 감독은 "미국 생활이 10년 차에 접어들 무렵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참에 뜻밖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기회가 찾아왔다"며 "새로운 곳에서 '내 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인도네시아에 온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로 이주한 뒤 MNC가 만든 애니메이션 '끼꼬'(KICO)를 시추에이션 액션 코미디로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 2016년 2월부터 방영한 결과 7~8%였던 시청률을 27%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도라에몽(일본작품)도 이긴 것이다.

애니메이션 불모지인 인도네시아에 오 감독은 미국 제작 방식과 수준을 도입해 이른바 '깃발'을 꽃았다.

오 감독은 MNC를 설득해 '잭 스톰'(Zak Storm)이라는 시리즈까지 만든 뒤 작년 여름 회사를 박차고 나와 자카르타에 'SHOH 엔터프라이즈'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직접 차렸다.

현재 직원은 110여명, 4년 안에 500명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다.

그의 회사는 '안녕 자두야', '미니특공대', '고고 다이노',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프랜주' 등 5개 한국 작품의 인도네시아 판권을 확보해 인도네시아 RTV, SC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또, '레이디버그', '미니특공대', '콩순이', '스토니즈' 등 다수의 한국 만화작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작업을 수주해 자카르타로 가져왔다.

올해 10월에는 애니메이션·웹툰·게임 학원을 자카르타에 오픈해 인력을 처음부터 양성해서 활용하고, 점진적으로는 자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오 감독은 "지금은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 시장에 씨를 뿌릴 때라 생각한다"며 "좋은 콘텐츠를 계속 공급하다 보면 인도네시아 시장 성장과 함께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도 알리기'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회 출범



▲ 지난 13일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 스마랑 지회 출범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 제공]

인도네시아에서 '독도 알리기'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가 지난 13일 중부자바 주도 스

마랑(Semarang)에 지회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는 족자를 시작으로 수라바야, 반둥, 버가시에 이어 이번에 스마랑 지회를 개설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국위 선양을 위한 영역을 넓혔다.

이날 스마랑 한인회 건물에서 열린 스마랑 지회 출범식에는 배연자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 회장과 현상범 전 회장, 스마랑 지회 임원, 교민과 인도네시아 대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랑 지회 초대 임원진은 정진주 회장, 김소용 고문, 김건우 자문위원장, 변상돈 수석부회장, 김태현 사무국장 등으로 꾸려졌다.

배연자 회장은 "자유총연맹의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스마랑 지역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독도 홍보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랑과 주변 지역은 최근 신발과 봉제 등 한국계 업체들이 대거 투자해 많은 한인들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도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다.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는 3·1운동 기념행사 외에도, 독도 알리기, 6.25전쟁 기념 및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톱스 목금형(톱스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스금형, 특수 칼금형

www.biss.kr

부산국제 신발전시회

2019.10.31—11.02
BEXCO 제1전시장

함께하는 신발축제,
다시 뛰는 신발 100년



인니 韓대사관에만 있는 ‘임무관’ ... “남한 면적 12배가 산림”

산림청서 1971년부터 주재관 파견...12대 임영석 임무관

전 세계 한국 대사관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만 있는 독특한 자리가 있다.

바로, 산림청에서 주재관으로 파견한 ‘임(林)무관’이란 자리다.

12대 임무관인 임영석(42)씨는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국토 면적의 64%가 산림”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1억2천만ha로, 남한 면적의 12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나무를 키워 원목으로 쓰려면 50년이 걸리지만, 인도네시아는 8~10년”이라며 “양국 간 산림 분야 협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가고 역할을 할 임무관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파견됐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와 산림 협력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투자허가 1호를 받아낸 한국남방개발이 450만 달러를 투입,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의 천연림 27만ha를 확보해 개발사업에 나선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 사례이다.

이후 동화기업, 경남교역을 비롯한 여러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채 허가를 받아서 원목을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하며 성업을 이뤘다.

이에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 정책과 규정에 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신속히 제공하고, 애로를 해결



해주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1971년 심필구 당시 임업 사무관을 ‘1대 임무관’으로 파견했다.

양국은 1987년 산림협정을 체결하고 산림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작년에 23차 회의를 했고, 2011년에 한-인니 산림센터를 설치했으며 작년에는 톰복섬에 산림휴양 에코투어리즘 센터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임무관은 이러한 한-인니 산림 협력의 최전방에서 뛰었다.

임 임무관은 행정고시 48회 출신으로 2005년부터 산림청에서 수목장림·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정책, 유엔식량농업기구 파견, 국유림 관리 등 업무를 거쳐 2017년 2월 ‘12대 임무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서 일하면서 다자외교를 경험했고, 양자 외교에도 관심이 있었다”며 “산림청에서는 양자 협력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라서 임무관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985년 가공한 목재만 수출하도록 하고, 원목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시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2001년부터 전면 적용하고 있다.

또, 2011년에는 신규 천연림 벌채허가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작년에는 팜유 생산을 위한 산림 이용 신규 허가권을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임 임무관은 “인도네시아는 산림을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두고 정책이 계속 변화해왔다”며 “산림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흥망성쇠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림 분야에서 남방개발·SK네트웍스 등이

철수하고, 지금은 12개 한국 기업이 남아 있다.

삼성물산·LG상사·포스코대우 등 대부분 한국 기업은 현재 조립사업보다는 팜유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은 임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에 목재상을 했었다.

그는 2014년 산림부와 환경부를 합쳐 산림환경부로 만들고, 산림 보존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 임무관은 “산림과 관련해서는 환경과 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은 목재가 필요하기에 꼭 보존해야 하는 숲은 강하게 보존하고, 목재 생산이 지속 가능하게 이뤄지도록 법·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니 임업공사, 서부자바주에 테마파크 건설 계획



인도네시아 임업공사 페룸쁘르후파니(Perum Perhutani)는 서부자바주에 디즈니 랜드 수준의 대형 테마파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테마파크 내 모든 전력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용한다.

현지 언론 펄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페룸쁘르후파니의 드날디 최고경영자(CEO)는 “자카르타에 가까워 인구도 많고 교통도 좋은 서부자바주를 건설지로 선정했다. 투자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테마파크 개발 경험이 있는 미국 기업과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회사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영기업부 및 환경·임업

부, 관광부 등도 테마파크 건설 계획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뿌르후파니는 임업 이외에 중부자바주와 동부자바주 관광 개발도 다루고 있다.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 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 3002 9090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2020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